
	<b>보도자료</b>	배포일자	6. 11.(수)	매수	2매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b>상주적십자병원</b>	실 장	한 은 주		054-530-3042	
		담 당	지 중 훈		054-530-3027	

## 대한적십자사, 한국수출입은행 후원으로 상주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개소

-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기대 -



사진설명: 6월 10일, 상주시 및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상주적십자병원에서 누구나진료센터 개소를 기념하여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6번째부터 강영석 상주시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한원근 적십자의료원장, 김혁수 상주적십자병원장, 김재왕 경북지사회장) 출처: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상주적십자병원에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누구나진료센터’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누구나진료센터는 앞으로 ‘외국인 건강교실’, ‘찾아가는 경로당’ 등 대상자별 특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간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온 취약계층의 건강권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센터 개소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1년부터 적십자사에 누적 34억원을 기부해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30억클럽’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사회공헌기관이다. 특히 2023년부터는 적십자사 의료원을 통해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의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상주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개소로 결실을 맺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 김주연 상주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김재왕 경북지사 회장, 한원곤 의료원장, 김혁수 상주적십자병원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힘을 모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개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인 ‘존애원’의 역사성과도 맞닿아 있다”며,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누구나진료센터를 계속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70년간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져 온 상주적십자병원의 역할과 위상이 누구나진료센터 개소를 계기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누구나진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진료봉사 및 후원)할 수 있는 의료·봉사 플랫폼으로, 기업과 개인의 후원을 바탕으로 자발적 봉사로 운영되며 진료 봉사를 원하는 의료인은 병원에 연락하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